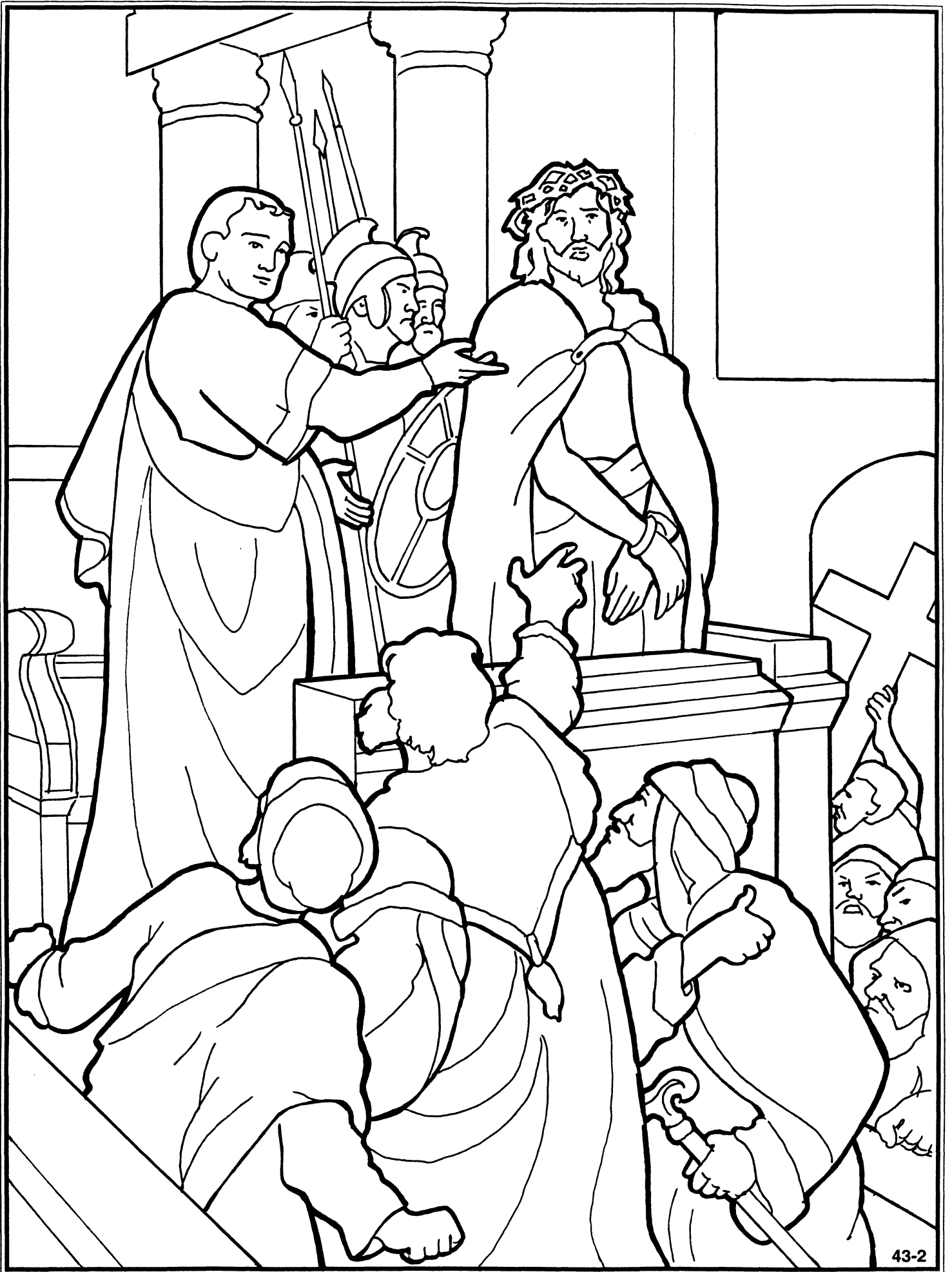


무료입니다 - 하나씩 가져가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읽고 색칠하세요.

마흔 세 번째 이야기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요한 복음 19:1-16

로마 총독은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예수를 죽게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놓아 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본 후, 그에게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못된 군인들은 가시로 등글게 관(머리띠)을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놓아주라고 할 것으로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포기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내어 주었습니다.

기도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합니다.
아멘.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귀절 (외우세요)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죄)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많은 시간을 땅에서 보내는 새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소리 없이 앉아서 적들이 가기를 기다립니다.

예수께서도 재판을 받으실 때 조용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워서가(겁이 나서)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는 말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6:1-4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궁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꾀홀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